



애경산업, 24년 연속 무쟁의 달성

애경산업이 상생과 소통의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4년 연속 무쟁의'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양 측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애경산업



GS리테일,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

GS리테일이 후원하고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KOINCE)가 주관한 '2026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후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알고리즘 시대, 새롭게 정의되는 소비자권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GS리테일



보령암학술상, 유방암 연구 권위자 박연희 교수

보령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암 퇴치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보령은 한국암연구재단과 함께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 건희홀에서 '제25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연희 교수는 200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및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20여 년간 유방암 분야에서 임상 진료와 연구 활동을 펼쳤다. /보령



우리금융그룹, 국방부와 '우리 히어로'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군 장병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부와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 미래재단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먼저,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영웅 예우와 복지 증진에 앞장선다. /우리금융그룹

**인사** ◆조선일보 △노설위원 최재혁 △정치부장 황대진 △콘텐츠앤미디어전략팀장 겸 미래기획부장 박건형 △스피셜팀장 강영수

**부음** ▲이정연씨 별세, 김영숙(밀양시 산림행정담당)씨 모친상 = 20일 오후 5시,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23(삼문동) 밀양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밀양화장장. 055-356-9411

# 금융위, 국민 체감 성과 낸 직원 3명에 1800만원 포상

제2회 '금융위인상' 수상자 발표  
김기태 서기관, 성장펀드 안착 견인  
박은경 사무관, 원스톱 구제망 구축  
한성운 주무관, 매매분석체계 개발

금융위원회가 국민이 체감 가능한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제2회 금융위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원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제2회 금융위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성과를 낸 소속 직원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우수성과에는 ▲국민성장펀드 설계 및 집행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불법공정거래 매매분석 시스템 구축 등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포상 대상자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다. 특히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포상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1등에 선정된 김기태 서기관과 2등에 선정된 박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금융위인상에 선정된 김기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경 사무관은 대국민 추천을 통해 포상 대상자로 접수됐다.

금상(포상금 1000만원)에는 김기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이 선정됐다. 김 서기관은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안착을 견인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범 5개월 만에 12조5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 서기관은 '첨단산업 생태계 기여방안'을 통해 스퀴어업, M&A지원, 지역전용펀드 등

'실패경험도 자산이 되는' 운용사 선정 기준도 제시했다.

은상(포상금 500만원)에는 박은경가계금융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처리 절차가 상이해 피해자의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지만, 박 사무관은 전 기관 공통 매뉴얼을 마련하고 협

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동상(포상금 300만원)은 한성운 가상자산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 주무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상자산 매매분석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직원도 조사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9억원 상당의 시스템 개발 예산 및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혐의자를 적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성과도 거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파격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도전하는 공무원이 늘고, 도전하는 공무원이 늘수록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며 "포상이 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금융위원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체감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8호' 조성

서울 내발산초 19개 학급 대상  
멸종위기 식물 494그루 전달  
임직원 봉사단, 환경교육 진행

코웨이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초등학교에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8호'를 조성했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는 도심 속 자연·생태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 학생들이 식물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 식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친환경 ESG 활동이다.

코웨이는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함께 내발산초교 19개 학급에 '파초일엽', '아라우카리아' 등 멸종위기 공기정화

식물 총 494그루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과 임직원 봉사단은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된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었다. 또한 임직원 봉사자 전원이 환경교육에 보조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반려식물의 생태적 가치와 올바른 관리 방법을 배우며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코웨이는 2022년 시작한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전국 8개 초등학교에 총 3611그루의 멸종위기 식물을 기부했다. 또한 교실숲에 기부한 식물 수만큼 멸종위기 식물을 별도로 식재해 향후 이를 숲으로 옮겨 심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솔그룹, 대학생 AI 숏폼 공모전 개최

생성형 AI로 제품·기술 재해석  
총상금 1400만원·공채 가산점

한솔그룹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AI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21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일상속 한솔그룹의 제품·기술·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일상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솔그룹의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소재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한 숏폼 영상을 유튜브 또는 인스

타그램에 올린 뒤 오는 8월2일까지 지원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총 상금은 1400만원으로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2팀) 각 300만원 ▲우수상(3팀)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향후 한솔그룹 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 가산점도 부여한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한솔그룹의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솔그룹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aT, 파리서 K-수산식품 매력 알렸다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K-엑스포  
해조류·김스낵·전복 시식·쿠킹쇼

한국산 수산식품의 프랑스 시장 수출이 최근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러한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미식' 흐름, 양국 간 수교 140주년 등에 발맞춰, 해양수산부와 함께 파리에서 박람회

를 열었다.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18일(현지시간) 기간 파리에서 '2026 K-엑스포 : K-컬처의 모든 것' 박람회가 열렸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K-콘텐츠를 중심으로 연안 산업의 동반 진출과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제품과 김스낵, 지속 전복 등 건강, 편의성을 담은 다양한 한국 수산식품이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 K-엑스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시됐다. 이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김부각, 해초 샐러드, 홍게살 샌드위치 등을 시식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현지에서 한·불 퓨전 요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현선 조리장이 펼친 쿠킹쇼도 인기를 끌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마사회, 경마 건전화·이용자 보호 강화

제7기 사감위, 첫 현장행보  
과몰입 진단·AI 불법도박 대응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경마 이용문화 조성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말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사회는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제7기 국무총리 소속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196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7기 사감위는 시행산업 분야 첫 현장 행보로 한국마사회를 찾아, 경마 건전화 사업 추진현황과 이용자 보호, 경마 중독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사감위 위원들은 보고 이후 경마 관람시설과 승용마사현장을 둘러보고, 마사회의 건전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감위는 특히 관람시설 내 가족친화 공간인 '놀라운지'와 이용자의 실명구내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전자카드센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시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데이터기반 과몰입 위험 진단체계 고도화 ▲AI 기반 불법도박 대응 강화 ▲건전한 여가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중독예방 활동 확대 등이 다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